



# COVENANTS WATCH

人權公約施行監督聯盟

THE ADVOCATE OF HUMAN RIGHTS  
IN TAIWAN



人權公約  
施行監督聯盟  
Covenants Watch

[www.covenantswatch.org.tw](http://www.covenantswatch.org.tw)



# Covenants Watch 에 대하여



국제인권규약 감독 비정부기구 (통칭 Covenants Watch, 이하CW)은 대만 타이베이에 본사를 둔 비정부기구로, 대만의 국내인권 증진과 만인의 평등을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대만은 197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활동에서 제외되었으며, 인권 관련 기관의 활동 전반에서도 논외가 되었습니다. 외부 감독이나 국제조약의 관리 부재 하에 대만의 국내인권 실태를 국제인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CW는 그간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조약심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만 고유의 조약심사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 조약심사제도는 대만 정부의 미흡한 인권 보장에 국가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법 또는 정책이 국제인권 관련 조약에 입각해 규정되도록 합니다. 또한, 국내 활동과 국제 사회에서의 활동 모두에 영향을 미쳐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UPR)와 그에 따른 특별절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CW의 주요 활동

## 1 정책 제언

"국가 인권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파리원칙)"에 준거한 국내인권기관의 설립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국내기구를 개선하고 인권상황 감독을 강화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2 협약이행 상황감독

국제 전문가에 의한 국내 조약 정기검토시, 대만 국내 NGO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보조합니다. 이 심사로 협약과 최종 견해 및 권고문의 국내 이행을 감시, 감독합니다.

## 3 인식 제고

인권 운동가와 일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인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강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합니다.

## 4 연구

국제 인권법에 관해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해 대만 정부에 해외 선례를 바탕으로 한 유용한 지침과 공신력 높은 참고자료를 제시합니다. 이는 정책 제언시에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 대만에 대한 배경지식

## 세계에서 누락된 존재

흔히 '대만'으로 통용하지만 이 국가의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이며 236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대만)은 유엔 설립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며, 1970년에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 서명, 또한 인종차별철폐조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얻으며 중화민국은 1971년 유엔 탈퇴를 시작으로 많은 국제기구에서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렇듯 중화민국이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제외되며 대만 국민들의 권리는 도외시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 - leaving no one behind"라는 유엔의 신념에 분명히 반하는 조치입니다. CW는 이 정치적 고난에도 불구하고 부정될 수 없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대만사회에 도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정치와 인권 사이에서

대만 현지의 인권 활동은 대만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1980년대부터 90년대를 따라 발전하였고,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국제인권 기준을 도입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만정부도 차츰차츰 국제 인권법 규정을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정치적 문제로 인해 대만정부가 요청한 국제 인권 관련 조약 비준 신청은 유엔에 의해 모조리 기각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대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이 유엔인권조약관련기관과 소통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차단되었고, 이로 인해 대만의 관련 전문가들은 효과적으로 인권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대만의 사법원은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시행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률의 발효로 국제조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이 대만 국내에서도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현재까지 3개의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과 그에 따른 시행령을 각각 제정했고, 따라서 이 국제인권조약들은 현재 대만 내에서 법적구속력을 가집니다.



# 대만의 인권상황 감시제도

## 부족한 외부 규제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시행령 제 6조는 "정부는 국제인권 규약에 따라 인권보고 제도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도를 확립하는 구체적인 규칙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만은 비유엔 회원국으로서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받지 못하고 있어 대만 정부의 인권 관련 대응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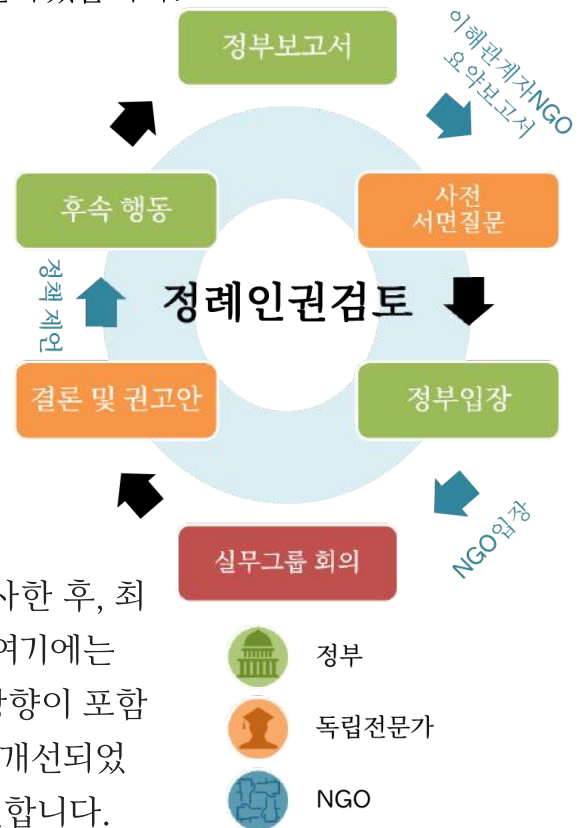


## 대만이 자체도입한 국제조약 심사 제도

CW를 필두로, NGO들의 오랜 노력 끝에 대만 정부는 국제조약 심사 제도를 국내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약 심사 제도는 본래의 유엔 보고 제도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 국내 상황을 반영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내 보고 제도는 국제전문가, 대만정부, 그리고 NGO들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협약심사제도는 검토 대상국이 제출한 국내인권 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협약기관이 심사하는 반면, 대만의 조약 심사 제도에서는 4년에 한번, 민간단체에 의해 선출되고 대만정부에 의해 초청된 국제전문가들이 타이페이에 모여 심사하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심사가 각 국가마다 대략 하루 반 걸리는 것과 달리, 타이페이에서의 심사는 5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많은 시간을 NGO의 발언에 할애합니다.

국제전문가 위원회는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결론 및 권고안 (COR)"이라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현 국내 인권 상황의 문제점과 차후 대만정부가 개선해야 할 방향이 포함되고, 다음 협약 심사 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는가를 재심사합니다. 이 과정은 실제 유엔의 협약 심사와 동일합니다.



# 대만에서 CW의 역할

## 인권 활동가들의 연합체

CW는 대만정부의 국제 인권법 이행을 보조·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조직이고, 어떠한 정치적·종교적 단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CW는 2009년 세계 인권 선언일에 설립되었고, 40개 이상의 인권단체와 개인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인권운동가들의 연합체입니다. 법제도개혁부터 사회정의, 남녀평등, 소수민족이나 장애인의 권리, 난민과 노동 이민자의 권리, 환경보호, 공공위생 등을 보장하려 힘쓰는 폭 넓은 분야의 인권단체들이 CW의 구성원입니다.



## 시민사회와 NGO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조약 심사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북돋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CW는 정기적으로 국제 인권법과 유엔의 인권보장 시스템에 관한 연구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숙고를 촉구합니다. 현재 CW는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대만 국내에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 대만의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이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장입니다.

2013년에 열린 제1회 국제인권 규약 심사에서 CW가 이끄는 67개의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보충서류가 국제전문가 위원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17년 장애인 권리 협약의 국제 심사에서는 16개의 장애인 단체를 심사과정에 성공적으로 참여시키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CW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인권문제들을 더 깊게 이해해 다원적인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폭넓게 반영하는 다각적 분석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문제에 더욱 효과적인 대안 또한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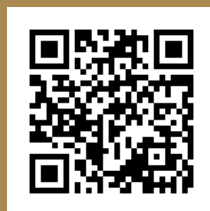
그와 동시에 CW는 대만 국내에서 경제민주연합, 시민 헌정 추진 연맹 및 티베트 대만 인권 연합회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아시아 인권개발 포럼 (FORUM-ASIA)과 같은 아시아 전체가 자리한 무대에서 회원국인 대만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지원의 부탁

현재 대만은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만은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부해 주시는 분은 왜브사이트에서.



## 연락처

Covenants Watch | 人權公約施行監督聯盟



+886 (0)2 3393 1815



+886 (0)2 3393 1850



info@cwtaiwan.org.tw



www.covenantwatch.org.tw



100 台北市中正區仁愛路二段97-1號4樓  
4F, No.97-1, Sec.2, Jen-Ai Rd., Zhongzheng Dist.,  
Taipei City, 10062 TAIWAN